

육아정책 Brief

통권 제83호 | 발행인 : 백선희 | 발행일 : 2020년 11월 17일 | 발행처 : 육아정책연구소

아동의 미디어기기 중독과 사이버비행 감수성, 조기 대처가 답

I. 문제제기

아동의 신체, 사회, 정서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미디어기기 중독 비율은 심각한 수준이며, 사이버비행에의 과도한 노출로 인해 아동들이 사이버비행의 위험성에 둔감해질 우려가 있음.

- 코로나19로 인해 아동의 교육·보육이 온라인 학습이라는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형태로 가정 에 들어오면서 아동과 미디어기기는 더욱 밀접한 관계로 자리 잡게 되었음.
 - ▶ 교육적으로 유익한 방향에서 미디어기기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지만, 아동의 미디어기기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은 경각심을 갖고 개선해 나가야 할 문제이기도 함.
-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이 발표한 아동의 스마트폰 중독 실태를 보면,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에 속하는 만3~9세 아동은 22.9%에 이룸.¹⁾
 - ▶ 스마트폰 중독 또는 과의존이란 스마트폰 이용이 생활 행태에서 현저히 두드러지면서 자기조절력이 감소하고 문제적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상태를 의미함.²⁾
 - ▶ 스마트폰 중독(과의존)은 아동의 신체, 사회 및 정서적 적응과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안전사고에 노출될 위험을 가중시킴.³⁾
 - ▶ 스마트폰 중독으로 기억력 감소, 안구 건조증, 시력저하, 손목터널증후군, 소음성 난청, 거북목 증후군, 척추측만증이 발병할 수 있으며, 스트레스 증후군, 불안정한 정서, 디지털 격리증후군으로 인해 사회생활의 문제를 경험할 수 있음.⁴⁾
 - ▶ 지나친 스마트폰 사용으로 온라인 범죄나 경제적 위험,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음.
- 또 하나의 미디어 사용 관련 이슈인 사이버비행의 경우, 사이버 공간에서의 익명성과 비대면성에 의존하여 발생하는 악성 댓글, 혐오 영상 확산 등 사이버폭력에 대한 과도한 노출로 아동들이 사이버비행의 위험에 대해 둔감해질 우려가 있음.
 - ▶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2019 사이버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초중고생의 사이버폭력 경험율은 26.9%로 나타났고, '재미나 장난으로, 친구들이 하니까, 특별한 이유 없이' 등 사이버폭력의 결과를 고려치 않고 행한 경우가 38.2%에 이룸.⁵⁾
 - ▶ 사이버비행에 일상적으로 노출됨으로써 아동들이 '나쁜 일'로 인식하는 민감성이 떨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처가 필요함.

※ 본고는 육아정책연구소 일반과제인 『한국아동 성장발달 종단연구 2019(한국아동패널 III)(김은설·최정원·장혜원·조혜주·김희수, 2019)』에 기초하여 작성됨.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정보화진흥원(2020), 2019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p.34.

2), 3),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정보화진흥원·스마트십센터(2020),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가이드라인 매뉴얼-아동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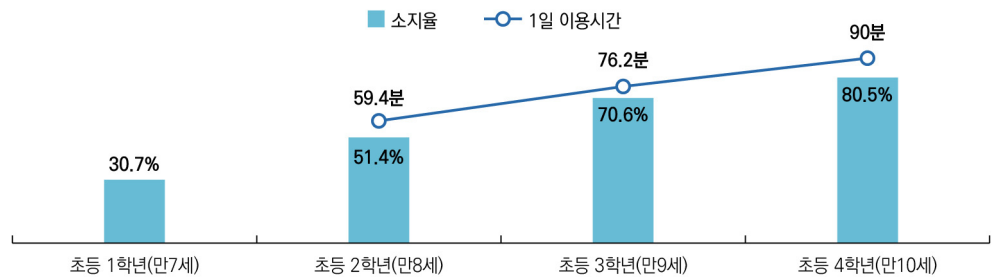
5) 방송통신위원회·한국정보화진흥원(2019), 2019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II. 연령에 따른 미디어기기 중독 심화

아동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휴대폰 소지율과 이용시간이 증가하고 있으며, 미디어기기 중독 위험군 비율 또한 초등학교 4학년 아동(만10세)의 경우, 전년 대비 약 31% 증가함.

- 매년 육아정책연구소가 발간하는 한국아동패널 보고서에 따르면, 아동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스마트폰 소지율과 이용시간 또한 상승함.
 - ▶ 한국아동패널조사 참여 아동이 초등학교 1학년(만7세)인 2015년 기준, 스마트폰 등 휴대폰 소지 비율은 30.7%였으나, 2학년 51.4%, 3학년 70.6%, 4학년 80.5%로 지속적으로 증가함.
 - ▶ 스마트폰 이용시간(PC 인터넷 포함)을 살펴보면, 초등 2학년 아동(만8세)의 경우는 일일 평균 59.4분이고, 이후 초등 3학년(만9세) 1시간 16분, 초등 4학년(만10세) 1시간 30분으로 매년 약15분씩 늘어남.

〈그림 1〉 아동의 휴대폰 소지율 및 스마트폰(PC 인터넷 포함) 사용시간 변화



주: 1) 보호자가 응답한 결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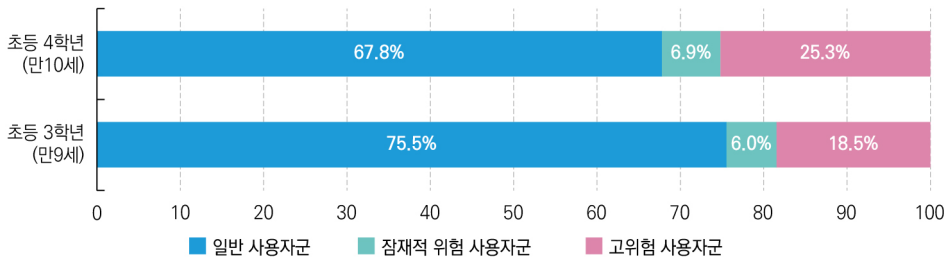
2) 스마트폰, PC(인터넷)의 1일 평균 이용 시간임.

- 자료: 1) 김은설·배윤진·조숙인·이예진·송신영·임준범·박은영·김신경·김은정(2016). 한국아동 성장발달 종단연구 2016(한국아동패널 II). 육아정책연구소. p.43 자료 재구성.
 2) 도남희·배윤진·이예진·이윤진·김문정·임준범·김희수(2017). 한국아동 성장발달 종단연구 2017(한국아동패널 II). 육아정책연구소. p.55 자료 재구성.
 3) 도남희·이정원·김지현·조혜주·박은영·김희수(2018). 한국아동 성장발달 종단연구 2018(한국아동패널 II). 육아정책연구소. p.76 자료 재구성.
 4) 김은설·최정원·장혜원·조혜주·김희수(2019). 한국아동 성장발달 종단연구 2019(한국아동패널 II). 육아정책연구소. p.93 자료 재구성.

- 스마트폰을 비롯한 미디어기기 중독 정도를 조사 결과, 초등학교 4학년(만10세) 미디어 사용 아동 중 고위험군 집단에 속하는 비율이 25.3%, 잠재적 위험군은 6.9%로 나타나 32.2%가 미디어기기 중독 위험집단에 속함.⁶⁾
 - ▶ 패널 아동이 초등 3학년(만9세)인 이전 연도 조사 대비, 위험군 해당 비율이 약 31%(7.7%p) 증가한 결과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급격하게 위험군 비율이 확대되고 있음.
 - ▶ 특히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남자 아동이 여자 아동 보다 미디어 중독 점수가 높은 것으로 측정됨.

6) 한국아동패널조사에서 사용한 미디어기기 중독 검사는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제공하는 K-인터넷 중독 관찰자용 척도를 수정한 것임.
 - 점수별 사용자군 구분은 다음과 같음(한국아동패널 홈페이지 내 도구프로파일 참조).
 • 일반사용자군: 총점이 27점 이하이고, 각 요인 별 점수가 모두 충족되는 경우(1요인 12점 이하, 3요인 10점 이하, 4요인 9점 이하)
 •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 총점 28점-29점, 각 요인 별 점수 중 한 가지라도 해당되는 경우(1요인 13점 이상, 3요인 11점 이상, 4요인 10점 이상)
 • 고위험 사용자군: 총점이 30점 이상에 해당하거나, 각 요인별 점수가 모두 해당되는 경우(1요인 14점 이상, 3요인 12점 이상, 4요인 11점 이상)

〈그림 2〉 아동의 미디어기기 중독 정도



주: 어머니가 응답한 결과임.
 자료: 1) 도남희 외(2018). 한국아동 성장발달 중단연구 2018(한국아동패널 II). 육아정책연구소. p.77 자료 재구성.
 2) 김은설 외(2019). 한국아동 성장발달 중단연구 2019(한국아동패널 II). 육아정책연구소. p.94 자료 재구성.

〈표 1〉 초등 4학년(만10세) 아동의 미디어기기 중독 현황

단위: %(명), 점

구분	미디어기기 중독 집단 구분			계(응답자 수)	총점(60점 만점)
	일반 사용자군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	고위험 사용자군		평균
전체	67.8	6.9	25.3	100.0 (1,399)	24.73
아동 성별					
남	61.9	8.3	29.8	100.0 (712)	25.69
여	73.9	5.5	20.5	100.0 (687)	23.71
		$\chi^2(df) / t$			57.0*
		23.1(2)***			
모 취업 여부					
취업	66.2	6.5	27.3	100.0 (787)	25.10
미취업	71.4	7.7	20.9	100.0 (573)	24.18
		$\chi^2(df) / t$			35.0
		7.5(2)*			
가구 소득					
399만원 이하	63.2	8.1	28.8	100.0 (285)	25.67
400~499만원	62.6	8.6	28.8	100.0 (243)	25.53
500~599만원	72.6	7.8	19.6	100.0 (296)	23.84
600만원 이상	69.9	5.2	24.9	100.0 (435)	24.28
		$\chi^2(df) / F$			97.9
		14.0(6)*			

주: 1) 어머니가 응답한 결과임.
 2) 총점이 높을수록 스마트폰 및 인터넷 중독이 심각함을 의미함.
 자료: 김은설 외(2019). 한국아동 성장발달 중단연구 2019(한국아동패널 II). 육아정책연구소. p.94 자료 재구성.
 * $p < .05$, *** $p < .001$.

Ⅲ. 사이버비행에 대한 문제성 인식과 성차

온라인 공간의 익명성을 이용해 자질러지는 사이버비행에 대한 아동들의 문제성 인식은 중요하며, 특히 남자 아동의 감수성 저하에 대해 관심을 둘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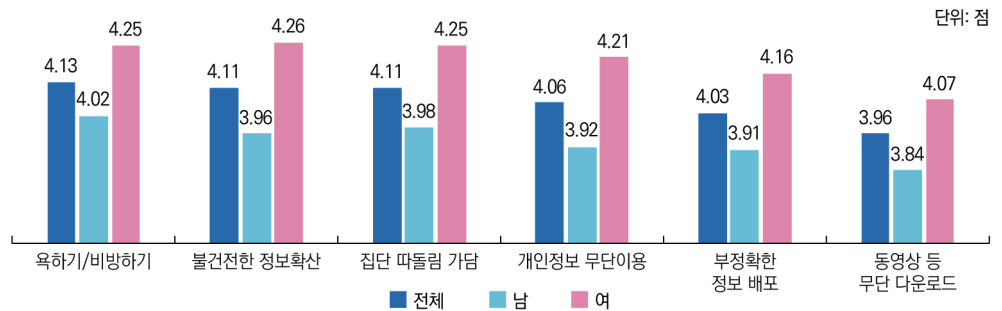
- 사이버비행 가해 학생을 대상으로 가해 이후의 심리 상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아무느낌 없음’(32.1%), ‘흥미롭고 재미있음’(14.8%)으로 응답되어 사이버비행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비율이 높은 편임.⁷⁾
 - ▶ 초중고생 86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사이버폭력 가해 후 심리상태에 대해 ‘후회스럽거나 걱정된다’는 비율이 약 50%인 것에 비해,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는 비율이 30% 이상에 이르는 것은 주요 사회 문제로 논의되어야 함.
- 온라인 공간의 익명성을 이용한 사이버비행에 대해 아동들이 이를 ‘문제 행동’, ‘잘못된 행동’으로 인식하고 있는지 여부에 주의를 둘 필요가 있음.
 - ▶ 한국아동패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온라인상 개인정보의 무단 이용이 문제가 된다고 인식하는 정도는 평균 4.06점(5점 척도)이며, 특히 동영상이나 사진 자료의 무단 다운로드

7)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2020. 1. 31). 2019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3.96점, 부정확한 정보를 확산시키는 것 4.03점 등 욕이나 따돌림처럼 상대에 대한 직접 폭력이 아닌 행동에 대해서는 가해로 인지하는 감수성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았음.

- ▶ 특히 문제성 인식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두드러지며, 초등 4학년 남자 아동의 사이버비행에 대한 문제성 인식 수준이 여자 아동보다 모든 항목에서 낮음.

〈그림 3〉 초등 4학년(만10세) 아동의 사이버비행 문제 인식 정도



주: 1) 아동의 응답임.

2) 5점 척도임(1.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 5.매우 문제가 된다).

자료: 김은설 외(2019). 한국아동 성장발달 중단연구 2019(한국아동패널 II). 육아정책연구소. pp.109-110 자료 재구성.

IV. 미디어기기 중독 예방과 사이버비행 감수성 함양

스마트폰 중독은 유아·아동기 조기 예방 교육이 가장 필요하며, 사이버비행에 대한 감수성을 키우는 교육이 요구됨.

- 스마트폰 등 미디어기기를 사용하고 소유하기 시작하는 유아기 또는 초등 저학년년부터 미디어 기기 과다사용의 위험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 ▶ 초등학교 4학년 대상 조사에서 휴대폰 소지율은 이전 년 대비 약 14% 증가한 반면, 미디어기기 중독 위험군 증가율은 약 31%로, 연령별 중독 위험성은 급격한 증가세를 보임. 미디어기기 과다사용의 위험에 대한 조기 교육이 필요함.
 - ▶ 스마트폰을 초등생용으로 구입하는 경우, 과다사용 위험성을 알리는 안내문 또는 건강한 사용을 위한 매뉴얼을 동봉함으로써 사용 초기부터 경각심을 일깨우도록 함.
 - ▶ 스마트폰 중독으로 인한 일상생활장애, 불안·우울, ADHD 등 위험성과 치료의 중요성을 TV나 온라인 포털에서 홍보함으로써 ‘미디어’ 자체를 교육 매체로 활용하여 자주 교육에 노출되도록 함.
- 아동들이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에 대한 여러 형태의 침해를 문제로 인식할 수 있도록 사이버 비행 감수성 교육이 필요하며, 특히 성별 특성을 고려한 교육 내용 구성이 요구됨.
 - ▶ 초등학생 시기에 사이버비행의 결과와 피해 현황 등에 대한 객관적 이해, 인지의 기회를 갖도록 효과적 교육 방안을 모색해야 함.
 - ▶ 사이버비행을 문제로 인지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감정이입, 도덕 민감성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아동의 연령에 맞는 방식으로 지원해야 함.
 - ▶ 특히 남자 아동의 사이버비행 문제 인식 점수가 낮음을 반영하여, 미디어 사용 교육에서 성별 특성이 고려될 필요가 있음.

김은설 선임연구원 eskim@kicce.re.kr